

4·11총선 여론조사-광주

민주통합 압도적 우세... 무소속·통합진보 맹추격

민주 강기정 43.7%... 김경진 선전 돋보여

임내현 1위... 김재균-윤민호 2위 싸움 치열

북구 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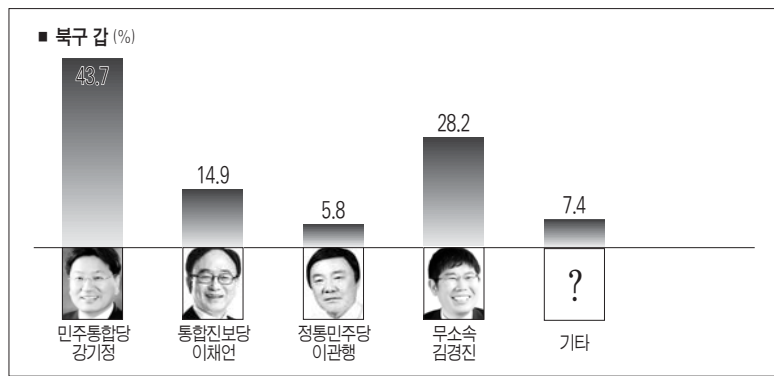
3선을 노리는 강기정 현역 의원이 민주통합당 경선에서 승리, 당 공천을 확정지으면서 다른 후보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제19대 총선 지지 후보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43.7%의 지지를 얻어 28.2%에 그친 촛불연대연대 고문번호사인 무소속 김경진 후보를 15.5%포인트 차로 제치고 여유있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인 통합진보당 이재언 후보가 14.9%, 민주당 제17대 대통령 후보 특보2단장을 지낸 정통민주당 이관행 후보 5.8%로 그 뒤를 이었다.

강 의원이 이처럼 경선 후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지만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는 상당한 도전을 감내해야 했다.

강 의원은 지난 1월 20일 광주일보 여론조사에서는 33.2%의 지지율을 김경진(17.5%)·박규환(12.2%)·임현보(11.0%) 후보의 거친 도전을 받았고, 2월 15일 여론조사



에서는 19.5%의 지지율을 김경진(14.5%)·이현석(14.4%)·임현보(11.3%) 후보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특히 강 의원을 제외하면 이들 후보는 경선 컷오프 직후 후보단일화를 선언하면서 강 의원을 위협했으나 강 의원은 민주당 공천장을 받으면서 치열한 혈투는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.

하지만, 김경진 후보의 선전도 눈에 띈다. 줄곧 강 의원을 추격하던 김 후보는 경선 컷

오프 탈락 후 탈락,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30%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하며 현역 의원을 위협하고 있다.

통합진보당의 이재언 후보도 자신의 정당 지지율(10.6%)보다 높은 14.9%의 지지율을 기록, 선전하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.

강 후보는 소속 정당인 민주당의 지지율(55.7%)보다 12.0%포인트나 낮은 지지율을 보였지만, 19세·20대(38.5%), 30대(42.7%), 40대(37.1%), 50대(46.0%), 60대(53.4%) 등 전 연령층에서 선두를 달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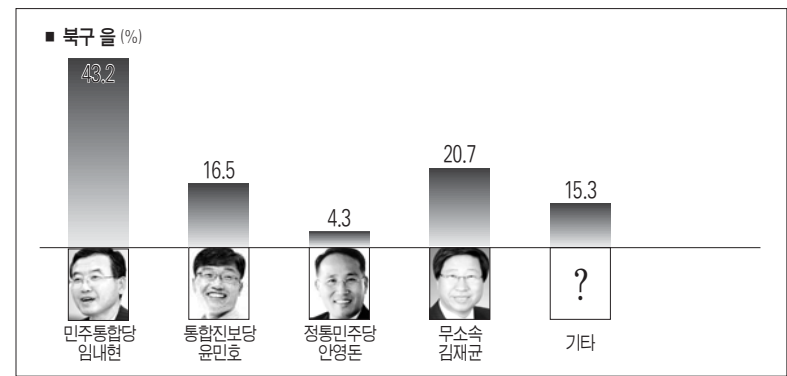
북구 을

민주통합당 임내현 후보의 독주 속에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현역 국회의원 김재균 후보가 뒤를 쫓고 있는 양상이다. 통합진보당 윤민호 후보도 오차범위(±3.1%포인트 95% 신뢰수준) 내에서 2위인 김재균 후보를 바짝 추격중이다.

이번 여론조사에서 민주통합당 임내현 후보는 43.2%의 지지율을 얻어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다. 그 뒤를 무소속 김재균 후보가 20.7%로 추격했고, 통합진보당 윤민호 후보가 16.5%의 지지율을 보이며 김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진보 신당 안영민 후보는 4.3%의 지지율을 얻었고, 무응답층은 15.3%였다.

임내현 후보는 경선 전인 지난 1월 20일 광주일보 여론조사에서 14.1%, 2월 15일 광주·전남지역 11개 언론사 공동여론조사에서 10.0%의 지지율을 얻는데 그쳤다. 하지



만, 민주통합당 후보로 확정된 뒤 빠르게 민주통합당 조직을 흡수하면서 이번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.

임 후보는 전 연령층에서 30% 이상의 지지율을 보였고, 특히 50대와 60대 이상에서 50%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.

무소속 김재균 후보는 지난 1월 조사에서 24.4%의 지지율을 보인 뒤 경선을 앞둔 2월 조사에서는 12.8%로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20%대의 지지율로 다시

상승했다. 통합진보당 윤민호 후보는 지난 두 차례 광주일보 등의 여론조사에서 각각 10.9%, 5.1%의 지지율을 얻는데 그쳤지만, 이번 조사에서 16.5%까지 치고 올라오며 2위 후보까지 위협하고 있다. 윤 후보는 30대에서 29.7%의 지지율을 얻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.

진보신당 안영민 후보는 지난 2월 언론사 공동여론조사에서 0.7%의 지지율에 그쳤지만,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4.3%를 얻었다.

김동철 59.2% 선두... 장원섭·김영성 뒤이어

이용섭 독주속 통합진보 황차은 추격 관심

광산구 갑

현역 국회의원인 민주통합당 김동철 후보의 독주 속에 통합진보당 장원섭 후보가 추격전을 벌이는 양상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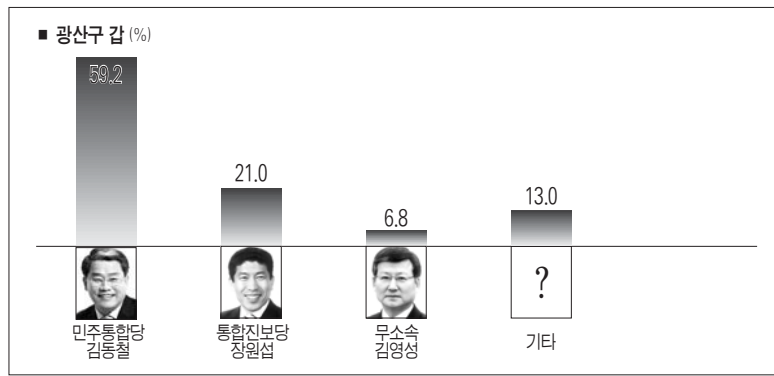
민주통합당 김동철 후보가 59.2%로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고, 통합진보당 장원섭 후보가 21.0%로 추격하고 있다.

이여 무소속 김영성 후보가 6.8%의 지지율을 얻었다. 무응답층은 13.0%였다.

김동철 후보는 지난 1월 20일 광주일보 여론조사에서 32.8%의 지지율을 얻었다가 경선을 앞둔 2월 15일 광주·전남지역 11개 언론사 공동여론조사에서 31.1%로 떨어졌었다. 하지만, 민주통합당 후보로 확정된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59.2%의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.

광산구 갑 지역의 민주통합당 지지도가 59.5%로, 광주 8개 선거구 중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하면 경선 이후 민주당 지지층이 결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.

김 후보는 전 연령대에서 50% 이상의 지



지율을 얻고 있으며, 이 중 50대(61.0%)와 60세 이상(73.1%)에서 높은 지지를 기록했다.

뒤늦게 선거전에 뛰어든 통합진보당 장원섭도 20% 이상의 지지율을 얻으며 민주통합당 김동철 후보를 맹추격중이다. 장 후보는 야권연대 협상 실무대표를 맡아오다 지난 2월 말에 선거전에 뛰어 들었다.

장 후보는 20~40대에서 20% 이상의 고른 지지율을 보였고, 이 가운데 30대(32.2%)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.

하지만,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8.6%의 지지율을 얻는데 그쳤다.

장 후보는 또 구 도심(충정1~2동·도산·어룡·동곡·삼도·분랑·평동동) 19.9% 보다 높은 도심인 신흥·우산·운남·월곡 1~2동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21.8%의 지지율을 얻었다.

무소속 김영성 후보는 19세·20대에서 3.7%, 30대 6.4%, 40대 9.2%, 50대 8.8%, 60세 이상 5.7%의 지지율을 얻는데 그쳤다.

광산구 을

재선에 도전하는 민주통합당 이용섭 후보의 독주 속에 통합진보당 황차은 후보의 추격 여부가 주목된다. 제19대 총선 가상대결에선 이 후보가 55.3%의 지지율을 기록해 27.2%를 얻은 황 후보를 28.1%포인트 앞섰다. 기타는 17.5%였다.

이 의원이 재선 고지를 향해 줄달음을 치며 서 나가는 형국이다. 지난 1월 20일과 2월 15일 광주일보가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와 황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52.5%·38.5%, 21.6%·15.2%를 기록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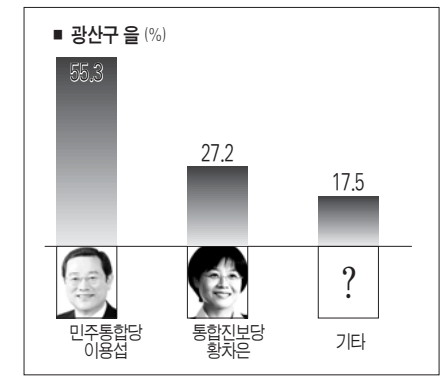
이 후보의 지지율은 정당 지지율과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.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54.2%, 통합진보당은 14.5%로 나타났다. 이에 새누리당 6.7%, 진보신당 2.5% 등의 순이었다. 기타는 17.9%였다.

연령별로는 이 후보가 모든 연령층(19세 이상~60세 이상)에서 황 후보를 크게 앞선 가운데 이 후보는 60세 이상(73.1%), 황 후보는 30대(34.3%)에서 각각 높은 지지율을

보였다. 지역별로도 이 후보가 54.6%(비야·첨단)~55.6%(신가·신항·수환·하남·임곡동)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, 황 후보는 26.5%(신가·신항·수환·하남·임곡동)~28.7%(비야·첨단)를 얻는데 그쳤다.

성별로는 이 후보가 51.1%(여성)~59.7%(남성)를 기록, 26.7%(남성)~27.7%(여성)를 얻은 황 후보를 크게 앞선 것으로 드러났다.

특히 민주당 공천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 중 47.8%가 '잘했다'고 답한 점을 감안하면, 이 후보의 독주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. 공천을 '잘못했다'고 답한



응답자는 37.5%였으며, 기타는 14.7%로 파악됐다. <총선 특별취재단>

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

2012년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. 1. 지원유형: 고용창출형 R&D 및 채용조건부 R&D 지원. 2. 지원대상: 중소기업. 3. 평가기준 및 일정. 4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. 5. 관련 법령. 6. 접수 및 문의처. 7. 권역별 사업설명회 일정.